

“北에서도 南에서도 교사는 내 운명”



제1부-희망 찾기 탈북학생 코디네이터 안수진씨

“단 한명 뿐이더라도 그 학생이 선생을 필요로 한다면 선생이 있어야 할텐데, 학교 관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걱정을 해요. 사실 그들(탈북학생)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들어갈텐데 말이에요.”

북한이탈주민 안수진(여·48)씨는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다.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도우미 교사’다. 탈북 학생과 담임 교사, 학교와 탈북민가정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A초등학교에 탈북 학생이 있다고 하자, 탈북 어머니와 중국에서 살다 온 이 학생은 한글보다 중국어가 자연스럽다. 한글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 1년간 공부방에서 한 게 전부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학생에게 스크랩킹, 예행연습, 컴퍼스를 가져오라고 하면 알아들을까. 알람장에 안내한다고 탈북 어머니가 알까. 북한에서는 이런 단어들 없기 때문이다.

코디네이터는 학교와 탈북 학생의 간극을 좁혀주는 게 업무다. 코디네이터도 탈북민인 까닭에 친밀하다. 부모들도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래서 학생생활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도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할 정도다. 사실 탈북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선생님이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원한다면...
수진 씨는 비록 계약직 보조교사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는 교사는 자신의 운명인 것 같다고 했다. 북한에서도 인민학교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1969년 러시아와 인접한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났다. 인근에 ‘아오지탄광’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산골이다.

그의 유년시절은 넉넉했다. 아버지가 김책공대를 나온 엘리트였던 덕분이다. 평양에 마물수도 있었지만, ‘부모를 모셔야한다’는 책임감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한 탄광의 관리직으로 배치됐다. 종업원이 6000명 가량이 이 탄광의 살림을 맡은 실무책임자였다. 어머니는 탄광 병원의 간호장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여군이 되고 싶었다. 제복이 멋있어서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가치관도 뚜렷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다. ‘배우야 한다’면서 대학에 가길 원했다. 아버지와 상당한 학교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원대학에 추천했고 합격했다. 군대에 미련이 남아 내심 떨어지기를 고대했지만 합격하고 말았다.

북한 교사는 남한과 다르다. 우선 교원대나 사범대에 가려면 출신성분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400m 달리기·수류탄 던지기 등 국방체력이 임용시험의 주요 과목이기 때문이다.

◇20살에 인민학교 교사로

3년제 교원대를 졸업한 그는 20살에 교단에 섰다. 첫 근무지는 고향에서 50리 떨어진 산골학교였다. 월주민보다 이 곳으로 추방돼 온 이주민들이 더 많은 곳이었다. 부모의 잘못으로 쫓겨온 아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거칠었고 불만투성이였다.

인민학교 교사는 하루 일과를 교실에 걸린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지침이 적힌 명제판을 정돈하는 것

으로 시작한다. 초상화에 먼지가 앉으면 큰일 나는 탓이다.

수진씨는 교사가 즐거웠다고 했다. 보람도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달라졌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급이 딱 끊긴 것이다. 교사라도 벌 수 없었다. 배를 곯고 고단했다.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라는 교사를 들먹이며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탁아소에 아이 둘을 맡기고 학교에 출근하는데 교장이 1분1초도 시간을 어기는 것을 넘어가지 않았다. 2교시 끝난 뒤 중간놀이시간 20분을 이용해 둘째아이 젖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배고픈 아이가 이 시간을 어찌 알겠는가. 제때 젖을 못먹으니 몸이 약하고 칭얼했다.

교사가 경비도 썼다고 한다. 교차재 도둑을 막기 위해서였다. 젓먹이가 딸린 여교사라도 예외가 없었다. 그는 아이 둘을 안고 메고 날새기로 경비를 썼다.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았다.

이렇게 아동바동 살았다. 어느날 갑자기 교사로서의 회의가 찾아왔다. 제 새끼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는 회의였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를 그만 둔 수진씨는 장마당(시장)에서 술장사를 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받아다가 물을 섞은 뒤 되팔았다. 벌이는 형편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많아졌다. 단속이 심해지면서 술장사를 접고 사금 채취에 나섰다. 하루종일 산에서 땅을 팠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교사였던 탓에 장마당에서는 눈치가 보였는데, 산 속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북에선

추방된 아이들 돌보던 인민교사

쌀밥 실컷 먹고 싶어 두만강 건너

남에선

탈북학생 적응 위해 보조교사 활동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만 10여개

북한 알리기·통일 교육도 매진

요가 없었다. 벌이도 조금은 나아졌다.

◇2번의 도강

북한에서는 생활총화라는 것을 하는데 어느날 여성동맹 생활총화에서 중국에 갔다가 잡혀온 사람을 향해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수근했다. 그 사람이 ‘난놈’(똑똑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배를 곯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다. 산골에도 소문은 퍼졌다. 중국은 쌀이 넘쳐나고 밥 먹기가 싫어 돼지에게 준다든가 이야기였다.

수진씨는 그 말에 현혹됐다. 중국에 가고 싶었다. 실컷 쌀밥을 먹고 싶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에게서 라디오를 듣게 됐다.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한국에 온 뒤 알게 됐지만 그 노래는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였다.



북한 인민학교 교사 출신인 안수진씨가 순천 자신의 집에서 북한과 한국의 초등교육 차이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졌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넜다. 2004년 6월이었다. 돈을 벌러 돌아와 그 돈으로 장사를 할 요량이었다. 중국 연길에서 넉달간 식당에서 일을 하며 500위안을 모았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두만강변에 나왔다가 붙들렸다. 보위부와 경찰서에서 죽도록 맞았다. 온 몸이 멍들고 터졌다. 그래도 든든했다.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화소(교도소)로 갔다. 그곳에서 2년간 공방을 먹었다.

교화소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북한을 등졌다. 2006년 11월 두번째로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5년간 살았지만 불안했다. 다시 붙들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한국행을 결심했다. 라오스·태국을 거쳐 2012년 3월 대한민국의 하늘을 맞았다.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직업이 필요했고, 직장을 구하려던 일야야 했다. 그래서 딱치는데로 배웠다. 지금 수진씨의 수중에는 사회복지사 2급, 한국어교원 2급, 중국어 HSK 5급, 인성지도사, 방과후학교 교사 1급, 다원재능상담사, ITQ 자격증이 놓여있다. 통일안보교육 강사와 자유학기제 중국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중국대표선수단 통역을 맡았다. 양학선·손연재 등 스포츠 스타들도 만났다. 북한에 대한 궁금해하는 외국인들도 만났다. “의외로 북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북한 알리기와 통일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천 글·사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난 성격 다듬어 한국인과 동화하라”

후배 탈북민들을 위한 조언

“내가 잘하는 것만 반복해서 찾아가는 ‘우물쭈물’ 하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 헤매는 ‘여행을 하는 영혼’이 되라.”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안수진씨가 후배 탈북민들에게 전한 조언이다. ‘북한에서는 이랬는데’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지 말라는 충고다. 수진씨는 “모난 성격이 북한에서는 통했는지 몰라도 한국에

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난 성격으로 살지 말고 아프더라도 모서리를 깎아 둥글둥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더라도 스스로 모난 성격을 깎고 다듬어 한국사람과 동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갖난 아이의 마음으로 새롭게 적응해 나가라고 권했다.

그는 또 “북한사람끼리만 놀지 말라”고 했다. 끼리끼리 있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

한국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조언했다. 많이 만나 봐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어야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보통의 한국사람은 탈북민들이 궁금할 뿐이지 무한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는 경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도 했다. 탈북민 대다수는 브로커 비용, 북한에 있는 가족 부양비 탓에 조금 해한다. 돈이 급한 나머지 다단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자기 노력으로 한뼘 한뼘 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北 아동 식량지원 축소

WFP, 모금 수준 열악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자금난에 시달려 북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 비스킷 공급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WFP 대변인은 “(지난달) 영양실조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애초 계획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했다”면서 “3월 말까지 모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4월에는 북한 주민에 지원할 곡물 자원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안사에서 2월 현재 북한 취약계층 식량 지원을 위한 총비용 12억 8600만 달러의 20% 수준만 확보한 상태라며 “3월 말까지 추가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치원에 대한 영양 비스킷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WFP는 지난달 북한에서 취약계층 82만4000명에게 2566t의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함경북도 무산군 회령지역 주민 3만명이 이번 지원대상 포함됐고 3월 말까지 이 지역 수재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 국내 거주 탈북민에

신변안전 유의 공지

정부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신변안전 유의 공지를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돕는 23개 하나센터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에게 ‘북한이탈주민 신변안전 유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된 문자에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에 유념해 주기 바라며, 주변에 거동 수상자가 발견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당국(111)이나 치안당국(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북·중 접경지역 등 해외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 체류 시에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도 홈페이지(<https://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 팝업창을 통해 같은 내용의 공지를 했다.

통일부는 또한 탈북민이 남한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경계를 강화했고, 하나원 교육생에게도 신변안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418명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212명이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